

전통·현재 잇는 새해의 소리…깊은 울림, 희망을 전하다

‘2026 ACC 신년음악회’…오는 17일 예술극장1

‘전통 예술의 원형’…국립 국악기관 정통 국악 레퍼토리 무대부터
장사익·김준수·추다혜 등 대중가수 협연, 특별한 새해 음악 선사

국내 대표 국악 예술단과 대중 가수들이 펼치는 특별한 전통예술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5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2026 ACC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ACC재단 설립 4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내 대표 국악 예술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수 장사익과 김준수, 추다혜가 협연자로 참여해 특별한 새해 음

악을 선사한다.

1부 무대는 궁중과 민간, 의식과 일상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통 국악 레퍼토리로 구성된 전통 예술의 원형을 선보인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북을 활용한 역동적인 군무 ‘연고무’와 봄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연흥무’를 통해 한국 전통춤의 미학을 풀어낸다.

연고무는 삼면의 고대에 매단 세 개의 북을 빠른 장단에 맞춰 두드리며 펼쳐지는 춤으로, 북가락과 함께 질풍노도처럼 휘몰아치는 몸놀림이 특징이다. 여성국극 명인 임춘앵과 춤의 명인 이매방의 법식을 바탕으로 진유림이 재구성한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모습.

작품으로, 힘과 흥이 어우러진 무대를 완성한다.

연흥무는 전통춤의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봄날의 정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햇살 가득한 봄날, 제비가 노니는 듯한 이미지와 부채를 활용한 동작, 치마를 여미고 여는 곡선적인 춤사위가 어

우러져 봄의 기운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고전 벽화나 오래된 서책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아련한 장단이 무대의 분위기를 더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궁중 행진 음악인 ‘대취타’와 진도 지역의 토속민요를 바탕으로 한 ‘오곡타령’을 선보인다.

대취타는 임금이나 대신의 행차, 군대의 개신 행렬에 연주되던 대표적인 군악으로, 태평소·나발·소라 등 관악기와 타악기가 어우러져 씩씩하고 장엄한 울림을 전한다. 진도에서 전승된 노동요를 관현악 반주로 편곡한 오곡타령은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타령 등으로 구성돼 일상의 노동과 삶의 리듬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이어 2부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함께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 3명이 협연자로 참여해

국악의 웅장함과 현대적 감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 소리꾼’ 장사익,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인기 드라마 ‘폭풍 속았수다’ 주제곡으로 유명한 추다혜 등이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할 멋진 선율을 들려준다. 여기에 배우 김혜연이 사회자로 나서 각 작품의 배경과 음악적 특징에 대한 해설을 더해 공연의 몰입도와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국립국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하겠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관객에게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오곡타령’(왼쪽)과 국립민속국악원 ‘연흥무’ 공연 모습



이이남 ‘산수극장’, 인천국제공항서 만난다

오는 27일까지 K-컬처 뮤지엄서 전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산수극장’을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내 K-컬처 뮤지엄에서 펼쳐진다.

전시에서는 지난해 4·7월 ACC 복합전시5관에서 개최된 ‘이이남의 산수극장’ 전시 속 메인 작품인 ‘산수극장’을 비롯한 작품 4점이 관람객들과 만난다.

동양의 고전 산수화(山水畵)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로,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진경산수화를 현대적인 디지털 픽셀과 결합시켰다. 관람객은 멈춰 있는 옛 그림 속으로 들어가

폭포가 쏟아지고, 새가 날아다니며, 사계절이 순환하는 시공간의 변화를 체험한다. 이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적 미의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가로로 길게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의 특성을 활용해 산수화의 파노라마적 웅장함을 극대화했다.

ACC는 이번 전시를 위해 남도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국적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산수극장’ 작품을 K-



이이남 미디어아트 ‘산수극장’ 전경

컬처 뮤지엄 공간 특성에 맞춰 재구성했다. 이곳 전시장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3면 전시실을 통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기탁 진무성 일가 고문서 70점 전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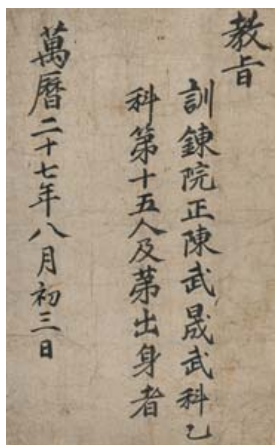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은 5일 “기탁 중인 고흥 여양진씨 무열사 소장 고문서 70점이 전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고문서는 고흥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해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책록된 진무성(1506~1638)과 그 일가가 5세대에 걸쳐 생산한 자료다.

진무성은 사천·당포·당항포 해전 등에서 공을 세웠고 2차 진주성 전투에도 참전했다.

해당 고문서는 조선 후기 무반 가문의 활동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임진왜란사·제도사·향촌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문서는 진무성의 과거 합격증인 홍패와 임명장인 고신 등 관직 관련 문서 37점, 호구단자 3점, 토지·노비 매매 문기 5점, 통문과 서신 15점, 포상 건의 문서인 소차계장류 10점 등으로 구



1599년 진무성 홍패

성됐다.

진흥원은 훼손이 심각한 자료를 보존처리하고 영인복제를 실시해 왔으며, 학술대회와 DB 구축 등 심층 연구를 통해 이번 지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진흥원은 지정문화유산 2천161점을 포함해 10만 점 넘는

호남 기록유산을 관리 중이다.

진흥원 측은 앞으로도 훼손 위기에 놓인 민간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당, 당, 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 식전 2봉지 드시고 체크해보세요.

☑ 당일 즉석 떨어집니다.

☑ 신비의 약초 천연식품 재료로 제조하였습니다.

[식약처허가 제2019-05191645]

NAVER

네이버 카페 비그라올라

검색

비그라올라

1박스-50,000원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은
흑염소부터 다릅니다!

☑ 100% 국산 자연방목 흑염소 진액 사용

☑ 식물성 재료 원료 배합

☑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조공법

☑ 다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깊고 깔끔한 맛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

1박스-60,000원

내안에 향기를 채우다 이제 뿌리지 말고 드세요!

천연 해조류에서 추출한 수용성 규소를 기반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굿바이

GOODBYE

1박스-120,000원

냄새 굿바이를 음용하시면 몸속 냄새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대화 중 입냄새, 겨드랑이, 발 냄새가 심한 분

☑ 갑자기 새어나오는 요실금 증상으로 소변냄새 걱정하신 분

☑ 매일 아침, 숙편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원하시는 분

☑ 대소변 냄새 감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원하는 곳 (요양원 등)

"본 제품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식당, 호프집, 요양원, 유흥주점
살포시 10분안에 냄새 제거!
냄새 악취 완전 제거 확실합니다.

2개월 분 -70,000원

푸른도개비 친환경살균제 특장점

적용대상	고추·양파·배추·무·딸기·포도·대파·모든 농산물
살균력	염소계 제품보다 250%이상의 산화력과 500%이상의 소독 능력
살균지속력	일반적인 살균력은 일시적인데 비해 7일이상 지속적인 살균력 유지
안정성	오존 및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에서 발행하는 소독 부산물이 없음
환경친화력	빛에 의해 쉽고 빠르게 분해되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피해가 없음
악취제거	악취 발생 공방이류와 발효 세균 등 분자 파괴로 악취 원인의 근본적 제거
병충해예방	식물로서 탄저병 예방

1 유익균에 우호

오염물질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므로 상대적으로 유익균에 우호적

2 중금속 제거

작업현장 수질의 가장 "중금속을 빠르게 산화"시키어 정화함

3 가스 제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등을 산화"시켜 제거

4 악취 근원 제거

단순 냄새 제거를 벗어나 원인 물질의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

5 살균의 지속성

박테리아나 균이 재 번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음"

6 기생충 억제

각종 "기생충들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기피제이므로 억제가 가능함

7 고도의 살균력

타사 살균제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

8 무독성

타 살균제와는 달리 클로로아민·클로로페놀 등 발암물질 생성안됨

9 신선도 유지

수확시 청지·살포하는 것으로 수확물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속 가능

총판 및 취급점 모집

대양식품(주)

080-374-5046

CMYK